

의학계열 수험생 1:1 맞춤형 지원

전북자치도교육청, 내일 원광대 학생회관서 진학컨설팅과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의학 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등 대입 전형 변경에 따른 입시 정보 지원과 수험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7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컨설팅'과 '찾아가는 권역별 입시설명회(의학계열 입시변화와 지원 전략)'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의학계열 맞춤형 진학컨설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전 신청자 50

명을 대상으로, 의학 계열 입시설명회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의학계열 맞춤형 진학컨설팅은 의학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생활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에게는 면접 자료집 2종이 제공된다.

찾아가는 권역별 입시설명회는 지난

6월에 실시한 의약학 계열 입시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의학 관련 설명회다.

이 설명회에는 부산남성여고 김형길 교장의 '2025 의학계열 입시변화와 지원 전략'을 시작으로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호남권 대학의 의학계열 선발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진학컨설팅과 입시설명회를 통해 최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의학 계열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문 상담, 수시 집중 대면·화상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대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진로진학센터 누리집(https://www.jbe.go.kr/jiro)을 참고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의학 계열 입시 준비는 수능 최최학력기준 충족이라는 학업 역량과 더불어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맞춤형 진학컨설팅과 입시설명회는 의학 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게 입시에 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가 20일까지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졸업생들이 학위복을 입고 졸업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북대 이성주 박사과정생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선정



전북대학교 이성주 박사과정생(수의대 수의학과·지도교수 전유별)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한 국가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한다. 선정된 연구자들은 연간 최대 2,500만 원의 연구비를 1~2년간 지원받아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과제는 'dCas9-ter1 기반MTN1aa 탈메틸화를 통한 돼지 난모세포 성숙 및 발달 능력 향상'이다. 이 연구는 최신 유전자 편집 기술인 CRISPR/Cas9 시스템을 활용해 돼지의 번식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주 박사과정생은 "이번 연구과제 선정은 전유별 지도교수님과 실험실 구성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 덕분에"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가축 질병 저항성 개선이나 의학 분야의 동물 모델 개발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24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약 820명의 박사과정생을 선정해 총 33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대, 초등교사 디지털융합교육 연수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원장 고한중)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초등교사 디지털융합교육 연수를 운영했다.

초등교원 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초등 교사의 디지털 융합 교육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지털융합 교육(수학, 영어, 국어정보 등) △에듀테크 및 AI 코스웨어 활용 디지털 소양 연수 △AI·SW 수업 혁신 안착을 위한 에듀테크 소양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미래교육이다.

박병춘 총장은 "디지털융합교육 연수가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디지털 역량과 변혁적 수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등교사의 SW·AI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LH전북·전북도시가스, 교육 기부 '눈길'

도내 초·중·고생 위한 인문 도서·안전우산 기증

전북도시가스(본부장 김동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섭)가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을 찾아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인문 도서와 세계 고전 명작전집 1,000권과 안전우산 1,500개를 기증했다.



전북도시가스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찾아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인문 도서와 세계 고전 명작전집 1,000권과 안전우산 1,500개를 기증했다.

원광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평가 'A등급'

인센티브 50억3200만원으로 총사업비 109억여원 지원받아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제2주기(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총 117개 사립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는 '교육혁신 성과(S/A/B/C)'와 '자체 성과관리(A/B/C)'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원광대는 교육혁신 성과 부문에서 A등급, 자체 성과관리 부문에서 B등급을 획득해 인센티브로 50억 3,200만 원을 받고 총 109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학생 전공 자율선택을 위한 학사 제도 개편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관련 지역사회 연계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기초소양교육 활성화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교육혁신평가체계, 다전공, MD지원체계 구축 노력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성태 총장은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학생 전공 자율선택을 위해 학사구조를 도전적으로 개편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학습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학습지원프로그램과 초연결 무경계 플랫폼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대 간호대학 대학원생들도 후배사랑 '한마음'

9년째 기부 이어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간호대학 대학원생 34명이 대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5,200만원을 기부했다. 간호대 대학원생들의 기부는 9년째 계속되고 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대학 대학원생들을 대표해 간호대학 조운정 박사 대표와 김민희 석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래 간호인재인 후배들에게 최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시작한 전북대 간호대학 대학원생들의 기부는 많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4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최대 인증인 5년 인증을 받은 전북대 간호대학은 이 인증평가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래 4회 연속 5년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간호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

조운정 간호대학 박사 대표는 "우리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34명이 지난 13일 전북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간호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 나가는 데 작거나 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의미를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간호대학 대학원생

여러분이 대학에 큰 응원과 지원의 손길을 보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에 힘을 얻어서 대학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

수여식 행사 진행 안해... 20일까지 '주간'으로 운영 학사 396명, 석·박사 198명 등 총 594명 학위 수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 주간을 운영한다.

지난 14일 전주대에 따르면, 대학은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졸업생 개별적으로 학위증과 상장을 수여하는 대신 20일까지 일주일간 학위복 대여 및 졸업생 사진 촬영을 위한 각 단과 대학별 포토존 운영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 졸업생은 학사 396명, 석사 150명, 박사 48명 등 총 594명이며, 환경생명과학과 최강민 학생 등 78명의 졸업생이 최우등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주대학교는 1964년 개교한 이래 현재까지 학사 83,925명, 석사 2,409명, 박사 1,119명 등 총 87,453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소헌성 교무처장은 "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의와 끈기를 보여준 졸업생 여러분께 박수를 보낸다"리면서 "지성 인성 영성에 기반한 가치와 역량을 갖춘 전주대학교 졸업생으로서, 대학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이 매 순간 빛을 발할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이념 아래 학생 성공과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창의적 실용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2024년 사업비 116억 원을 지원받는 등 각종 국책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교육 혁신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사범대학, 교·사대 교원양성 혁신사업 선정

교육부 추진... 중등 단독형으로 선정 전북 유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사범대학이 교육부의 '교·사대 교원양성과정 혁신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8월 13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총 38개 사업단(1개 대학 단독형 또는 2개 이상 대학 연합체)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온라인 대면 평가를 진행한 후, 20개의 사업단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주대 사범대학은 중등 단독형으로 선정된 전북 유일의 사범대학으로, 이미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A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사범대학 윤미병 학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주대 사범대학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선도하며, eduSTAR 인재상을 목표로 한 예비 교원 양성을 위해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 함께 하는 교원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역 거점 사범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전주대 사범대학은 교육부와 함께 교실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을 이룰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현장에서 교육 과정 혁신 모델을 실현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대, 여름방학 학력신장캠프 운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7일, 12~14일, 두 차례에 걸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2024년 여름방학 학력신장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여름방학 학력신장캠프는 교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대성 및 친밀성 강화 프로그램, 협동심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래 교육 대비를 위해 '퀴즈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자



기주도학습'이란 주제로 AI-에듀테크 기반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